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12.(목) 15:00 / 배포 2026. 11. 12.(목) 08:30
<11. 12.(목) 참고>

진에어-에어서울-에어부산 합병 인가, 27년 3월 17일부터 진에어로 통합 예정

- 통합사 출범 시 국내 LCC 중 최다 국제선 및 국내선 운항 예정 -

국토교통부(장관 홍지선)는 **진에어**가 **에어서울 및 에어부산**과 통합하고자 신청한 법인 합병 건에 대해, **「항공사업법」**에 따른 면밀한 **심사**를 거쳐 **합병**을 **인가**하였다.

아울러, **공정거래위원회**(위원장 주병기)도 본 합병 건 관련 **기업결합 신고**를 **승인**하였다. 합병 3사는 모두 기업집단 「한진」의 계열사로, 이들 간 합병은 「기업결합 심사기준」에 따르면 **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**된다.

금년 12월 17일 대한항공-아시아나 **통합 FSC* 출범**이 예정된 가운데, 내년 3월 17일에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**진에어**와 아시아나의 자회사인 **에어서울·에어부산** 3사 **통합 LCC** 출범**으로 항공산업 재편이 이루어진다.

* **F**ull **S**ervice **C**arriers: 기내식, 수하물 등 기내 서비스를 포괄 제공하는 항공사
** **L**ow **C**ost **C**arriers: 운임을 낮추기 위해 기내 서비스를 최소화하거나 유료 제공

합병 심사는 「항공사업법」상에서 규정한 면허 기준을 적용하였으며, **합병 자문단***의 심도 있는 **자문**, **한국교통연구원 및 회계법인**의 전문적인 **검토**를 통해 법령상 **관련 요건**들을 **확인**하였다.

* 항공산업, 소비자, 고용,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

심사 결과 외국인의 사실상 지배구조, 등기임원의 외국인 여부 등 **결격사유가 없었으며**, 자본금·재무능력·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합병인가 **심사 요건**을 **충족**하였고, 최종적으로 **면허 자문회의**를 거쳐 **합병을 인가**하였다.

심사 과정에서 **진에어가 제출한 계획**의 차질 없는 **이행**을 위해 통합 LCC가 출범하는 날까지 **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**와 **해외 항공당국**의 **인허가**를 완료

하고, 소비자 보호 관련 계획 등 제출한 계획 이행 여부를 매월 정기적으로 국토교통부에 보고할 것을 **조건**으로 부과하였다.

더불어, **진에어**는 아래와 같이 부산 거점 **항공 네트워크** 및 **인프라 확대** 등을 내용으로 하는 **부산 제2허브 육성 계획**을 **제출**하였다.

<부산 제2허브 육성 계획>

ㅇ (**김해공항 국제선 확대**) 노선 28→33개, 운항 281→339회/주 ㅇ (**인력 확충**) 승무원·정비사 등 전문인력 채용 확대, 지역대학 등 산학협력 강화 및 기존 인력 고용승계 및 인위적인 구조조정 배제 ㅇ (**인프라 확대**) 부산 거점 항공기를 확대 및 부산발 노선 투입, 에어부산의 기존 인프라 유지, 김해공항을 독립 정비 거점으로 육성

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제출한 제2허브 구축 계획은 **지방공항 활성화**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어, 진에어가 제출한 **제2허브 계획**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**이행 여부**를 **지속 관리**할 계획이다.

또한, 대한항공 및 진에어 측에 **에어부산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** 등을 고려하여 부산시 등 **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**하여 부산 **제2허브 육성에 충실히 임할 것**을 권고하였다.

국토교통부 **박준상 항공산업과장**은 “이번 대한항공 계열 대형 FSC·LCC가 통합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**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고,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** 엄중히 관리·감독하겠다”고 밝히며,

진에어에는 “국내 최대 규모의 LCC가 되는 만큼 **국제 항공시장**에서의 **경쟁력 확보**와 더불어 국민의 **항공교통 편의성**이 **증진**될 수 있도록 할 것”을 **당부**하였다.

한편, 국토교통부는 FSC 합병에 이은 LCC 합병으로 **대한한공 계열 항공사 규모**가 **증가**하는 만큼 **다른 LCC의 경쟁력을 강화**하여 **항공사 간 경쟁환경을 조성**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산업과	책임자	과 장	박준상 (044-201-4219)
		담당자	사무관	조범현 (044-201-4223)
			주무관	유동희 (044-201-4228)
담당 부서	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	책임자	과 장	김혜선 (044-200-5075)
		담당자	사무관	최유경 (044-200-507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